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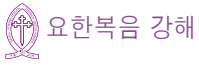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성전을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II

(요 2:12-17)

이종윤 원로목사

### 3. 메시아의 현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요 2:16)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 46에도 예수님께서 열두 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왕, 목자,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고, 때로는 은유적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곳은 있으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불러 주시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메시아성을 스스로 인식하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막 2:26, 마 12:4, 눅 6:4). 당시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면 망령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행위가 메시아로서의 행위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교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장로교, 개혁 장로교, 혹은 정통 장로교 혹은 연합 장로교, 감리교 등의 교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지 교회 혹은 개 교회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개 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제일이고 자기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대단히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 4. 성전 청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지상왕국이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공산당은 자기들이 지상낙원을 이루겠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희랍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요, ‘토피아’는 이상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산당이 말하는 이상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낙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구의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많은 분이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뜻에서 성전은 옳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규격을 맞추어 지어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반면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지상의 모든 왕국, 지상의 모든 나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곳에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2)인간의 모든 제도나 인간 자신을 신성화하지 말라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제도, 한국의 유신체제, 어떤 제도도 신성화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제사법, 유대인들이 양을 바치는 것 그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잘못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제도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런 생각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자리에 교회당을 어머머마하게 지어놓고 그 이름을 홀리 씨풀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무덤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당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콥교회, 오토독스, 러시아 사람교회. 그들이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장로교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는 제 뱃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만큼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십자가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제일 큰 원수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수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오늘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 대림절 (待臨節) Advent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절기와 행사를 정하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제정된 것이 교회력(敎會曆)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Advent)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에 해당되며 매년 11월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12월 1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대림절은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 다음 주 2020 섬김위원 임명

### 주일 I·II·III 부 예배 시 - 교구 총회 : 3부 예배 후 -

다음 주 I·II·III부 예배 시 2020년 교회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남녀 서리집사, 교구일꾼, 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등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모든 2020년도 섬김위원들은 2020년 1월 1일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2019년도 섬김위원들은 12월 말까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며, 12월 한달 동안 모든 업무를 인계한다.

다음 주일 주보와 함께 배부될 2020년도 섬김위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20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 스데반회 총회

### 12월 14일(토) 오후 3시 / 101호

스데반회 총회가 12월 14일(토) 오후 3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교회의 위기에 교회 곳곳에서 교회 지키이로, 식사 뒷처리 및 설거지로, 주차요원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각자 맡은 부서에서 섬겨주심에 감사드린다.

스데반회 정기 총회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권사회 총회

### 12월 11일(수) 오후 2시 / 101호

권사회 총회가 12월 11일(수) 오후 2시,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열린다.

교회가 어려워진 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4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와 매 주일 성도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하는 등 교회의 어머니로 많은 수고함에 감사드리며 권사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전교인 성경통독

2019년 시작과 함께 시작한 성경통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1독을 하고 2독 중인 성도들도 계시고 중도에 포기한 성도들도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에 연초의 계획과 결심을 기억하고 마지막 성경통독에 매진하자.



## 12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2월 1일: 김동진(치과), 오병호(피부과)
- 12월 8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12월 15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12월 22일: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
- 12월 29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장해라·장해윤 이준호3·이은희7 이영재 김선이  
민순구·이영희 정춘혜 이영조·이영자  
김동진1·박진주 송인덕·송민섭 유성택·권진순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 2019년도 연말 교회 일정

- 12월 8일(주) : 2020년 섬김위원 임명과 교구총회
- 12월 11일(수) : 권사회총회
- 12월 14일(토) : 스테반회 총회
- 12월 15일(주) : 교사총회  
성탄축하 찬양예배(할렐루아찬양대)
- 12월 22일(주) : 성탄축하 특별행사(교육부서)
- 12월 24일(화) : 오후 8시, 성탄전야예배
- 12월 25일(수)  
오전 5시 : 성탄절 새벽예배 (베들레헴찬양대)  
오전 11시 : 성탄절 축하예배 (할렐루아찬양대)
- 12월 29일(주) : 교회학교 졸업  
- 찬양예배 시 : 항존직분자 은퇴 및 장로안식년, 장한어머니상(다자녀, 개근자녀) 시상, 성경통독 시상  
- 찬양예배 후 : 특별 제직회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승인의 건)



감사합니다

# 교회 김장하던 날

## 여숙 권사 (권사회 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수고로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첫째 날, 스테반회 회원들의 수고로 새벽 6시 30분부터 약 400포기의 배추를 잘라 소금물에 절이고, 여성도분들은 무를 씻어서 채를 썰고 갖가지 양념을 다듬어서 썰어 놓고, 마지막으로 채썬 무를 고춧가루로 1차 버무리 놓는 일까지 해서 3시경에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날 51분이 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일이 쉽게 끝났습니다.

둘째 날,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곧바로 베델하우스로 달려오신 스테반회 회원들이 서둘러 배추를 씻어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속 넣는 일이 점심도 먹기 전에 끝났습니다.

덕분에 주일에 먹을 사골우거지탕에 들어갈 우거지를 삶는 일과 주일 한 끼 반찬을 책임질 무말랭이 무를 썰어 놓는 일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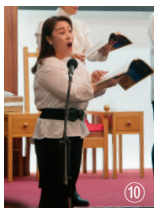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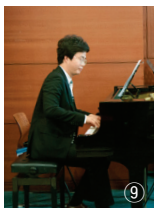
모든 분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은 첫날보다 더 많은 6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장하는 이틀 동안 당회에서 사과, 바나나, 귤등 과일을, 신항범 집사님께서 사과 1박스를, 정미연 권사님이 인절미를, 최종금 집사님이 가래떡과 사과즙을, 이경손 집사님이 보쌈 고기를, 이관규 장로님이 순대를, 장창수 집사님이 돼지껍데기와 갑오징어를, 오명걸 집사님이 파운드케익 6줄을 각각 섬겨주셔서 덕분에 봉사자들의 입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맛있는 배추와 무도 주시고 장소도 제공해 주신 오정수 장로님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사자들이 아무리 잘하고 와도 이것저것 뒷 마무리가 많을텐데 그 수고에도 감사드리며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벌써부터 내년도의 맛있고 즐거운 김장날을 기대해 봅니다.





①-④: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28주년 감사주일로 주일 I·II·III에 배에 거행한 성찬식  
 ⑤-⑩: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의 추수감사찬양 "말씀대로 거두리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대림절을 맞아 교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주신 노애리 집사님, 남재은 집사님, 유인정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등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12월 7일(토) '사랑의 쌓은동' 조찬기도회와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발령 : 5교구 박승기 집사  
 경기예술고등학교 피아노 전담교사

■ 금주의 식사 : 김재중 집사 김유경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골우거지탕, 곶절이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여 주옵소서.
3.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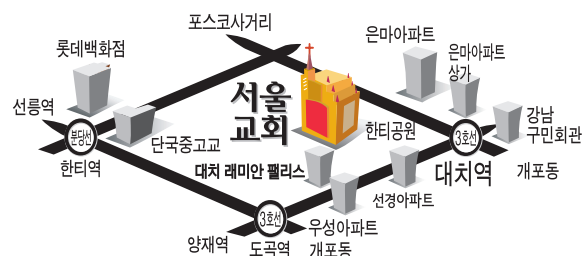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2월2일	월	엡 5-6		행 14-18	
12월3일	화	빌 1-4		행 19-23	
12월4일	수	골 1-4		행 24-28	
12월5일	목	살전 1-5		롬 1-6	
12월6일	금	살후 1-3		롬 7-12	
12월7일	토	딤후 1-6		롬 13-16, 고전 1-5	
12월8일	주일	딤후 1-4		고전 6-12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